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으로 녹색정부 건설에 앞장

한국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 분야 씽크탱크로의 도약 위해 적극 도울 터

▶ 국민의 정부 초대 여성부총리에 이어 참여정부의 환경부 장관을 맡고 계신데, 평소 장관님께서 가지고 계신 환경에 대한 포부(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참여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을 맡게 되어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게 된 만큼 앞으로 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환경과 개발이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을 국가정책에 반영시켜 녹색정부를 건설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참여정부의 첫해에 추진할 상하수도 분야의 주요 업무 계획은 무엇입니까?

급원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해'로서 물수요관리정책을 더

욱 강화하겠습니다. 물 절약 실천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물 절약 실천 운동을 전개하는 등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습적인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의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급수난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137개 시군에 대하여 1,728억원의 국고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처리기준 정착을 비롯한 과학적인 수돗물 수질관리를 시행해 나가고, 수돗물의 정수처리공정과 관리상태를 알기 쉽게 홍보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열린 수도행정도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까지 전국 주요 상수원의 수질을 2급수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수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하수처리장 420개소에 1조 6,553억원을 투자하여 이 중 57개소를 완공하고 하수도보급률을

76%까지 높힐 것입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9,477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1,964km를 정비하고 하수관거 보급률도 72%까지 제고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상하수도산업의 육성·지원과 상하수도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간이상수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물을 관리하는 부처만 5개이고 관련법률도 13개나 되기 때문에 행정낭비와 불합요한 부처간 갈등을 낳고, 선진국에 비해 물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대상인 물의 실체는 하나인데 물과 관련한 정부의 기능이 여러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수질관리·지방상수도·먹는물관리, 건교부는 다목적댐·광역상수도·하천관리 등 수량관리, 농림부는 농업용수관리, 행자부는 지방하천·비상급수·운천관리, 산자부는 발전용발전설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적인 물관리정책이 미흡하고, 물 부족과 수질 오염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위기관리능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물관리체제 개편에는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제기되어 왔으며, 작년부터 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물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물관리체제 개편에 대한 연구집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관련부처를 포함한 여 해당사자, 관계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물관리체제를 구축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 사업은 공공서비스로서 기능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는 법과 제도의 운영, 상하수도 보급의 지역간 격차해소 시정하기 위한 재정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하신 대로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광역상수도의 개발·보급, 지방상수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통해 급수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하수도 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방양어금을 포함하여 2003년에 2조 6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상하수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은 재원조달 문제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예산당국에서는 상하수도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라는 점을 들어 국고지원에 인색한 면도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가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대해 면밀히 분석·점검하고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지역 한국상하수도협회는 2002년 1월에 사무국을 발족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민력이나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디만, 영회기 장하수도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급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우리나라 상하수도 분야의 핵심 상부한 링크먼트로 도약하는 한 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부도 협회가 추진하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도을 생각합니다.

우선 협회에서는 상하수도 분야의 정책수립 지원기능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서비스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상하수도의 기술개발과 기자재 결·인증 기능을 활성화하고, 정수장 운영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협회가 상하수도 종사자들의 기술자격 관리기관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상하수도 관련 국내외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하수도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야 하며, 선진국가와 우수기술을 교류하고 '상하수도산업 국제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하리라 봅니다.

▶ 앞으로 상하수도 관련 종사자들에 상하수도의 정책 및 운영에 대해 협회에 건의해 오는 사항들에 대해 원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조치의 필요성이 필요인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참여정부'가 이미 천명했듯이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를 함께 참여토록 할 것이며, 특히 상하수도 분야에서도 관련종사자와의 협력이 매우중요할 것으로보입니다.

참여라는 과정을 통해 정부가 미처 보지 못하는 측면을 보완하는 기능과 정부 행정의 곤란과 결직함에 대한 비판을 통해 열린 행정을 유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으며, 현장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유도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부는 앞으로도 상하수도 관련업체 종사자들과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관계를 돈독히 유지해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협회가 업계와 정부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